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인

오 원 목**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지식사회처럼 단순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내에서 주입받은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간호교육계에도 영향을 주어 문제중심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나 근거중심 간호(Evidence Based Nursing: EBN)학습 방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방법의 특징은 외부의 구조화된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때 학습자에게 준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이다(Fisher, King & Tague, 2001; Patterson, Crooks & Lunyk-Child, 2002).

자기주도성이란 성인 교육의 중심개념으로 학습자가 교수의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일에서부터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 그리고 도움이 될만한 인적, 물

적 자원을 밝혀내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적용시키며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 또는 이와 관련된 인성적 특성을 의미한다(Candy, 1991; Knowles, 1975).

종래의 전통적인 의미의 폐쇄적 학습체제에서는 모든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평가 기준등이 사전에 미리 규정되어 있는 대체로 구조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자기주도적 학습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학습자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되고 그 결정의 기초는 학습자 개인의 가치, 욕구, 선호등에 두는, 즉 비교적 비구조화된 개방적 학습형태이다. 개방적인 자기주도적 학습 체제하에서는 기존의 '지시하고 따르는'식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학습이 상호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수용적 학습이라기 보다는 창의적 학습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Bower, 1979).

특히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다양한 간호실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주입적인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만으로는 그들이 미래에 부딪히게될 수많은 도전에 준비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속적인 전문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함양이 요구된다고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2002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투고일 2002년 2월 27일 심사위원회일 2002년 6월 20일 심사완료일 2002년 8월 2일

하겠다(Patterson, Crooks & Lunyk-Child, 2002).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또는 기술적 역량도 중요하나 많은 문헌에서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 즉 사회·심리적 변인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Kim, 1997; Kim, 2000; You, 1997).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들은 지적 기능을 습득하고 그것을 구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그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켜주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일 학습자가 긍정적 자아개념, 통제성, 개방성, 독립성, 내재적 동기 등의 인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자기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지적기능을 학습하는 일이나 그 기능을 구사하여 학습을 수행해 나가는 일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시작된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Kim, 1997).

특히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한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자아존중감과 통제위이다(Candy, 1991; Guglielmino, 1977). 많은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 또는 긍정적 자아개념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습자는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보다 자신의 학습과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이 보고되고 있다(Kim, 1997; Sabbaghian, 1980; You, 1997). 뿐만아니라 자신의 내부 의지에 의해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결과들이 조절될 수 있다는 내적 통제위적 신념을 지닌 성인일수록 학습에서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9; You, 1997).

또한 Kim(1997)은 국내외의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논문들의 종합고찰을 통해 성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인구학적인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사회·심리적 변인 중 생활만족도가 많은 연구에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즉, 인생에 대해 만족하는 성인 학습자일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높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rockett, 1983; Curry, 1983; East, 1987; Kim, 1997; You, 1997).

이상을 통해 볼 때 학습자의 개방적 학습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성이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이에 자아존중감, 통제위, 생활만족도등이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개별적인 단편적 결과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의 관계에 관한 통합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간호교육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간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습에 대해 자기주도적 성향을 가진 간호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에서 개별적인 관련성을 제시한 사회·심리적 변인과 자기주도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경험적 증거의 축적과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예측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3. 용어정의

- 1)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 학습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수행하는 학습과정 또는 학습자 자신이 배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학습자의 욕구, 기호, 의지 정도를 말하는 인성적 특성으로(American Nurse Association, 1978; Brockett & Rogers, 1989; Knowles, 1975),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1977)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측정 도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 SDLRS)를 이용하여 자가보고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자아존중감 : 자아개념의 포괄적 부분으로서 자기능력에 대한 확신감, 자기존재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성을 인정하는 태도로서(Taft, 1985),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197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Inventory: SEI) B형을 이용하여 자가보고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통제위 : 통제위는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Phares, 1976). 즉, 어떤 사건이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운명이나 행운, 우연과 같은 외부의 힘에 달려있다고 지각하면 외적통제위(external locus of control)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결과가 자신의 노력과 같은 개인적 통제에 달려있다고 지각하면 내적통제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Rotter의 내외적통제위척도(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를 이용하여 자가보고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4) 생활만족도 : 자신의 생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주위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하여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Kalish, 1975), 본 연구에서는 You(1997)가 일반 성인 학습자들의 생활만족도 측정을 위해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자가보고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간호대학생이며, 근접모집단은 서울, 충남, 경북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학

과 2, 3, 4 학년 학생이다. 이들 간호학과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간호대학생 224명을 임의표출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측정도구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측정도구는 Guglielmino(1977)가 개발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측정도구(Self-Directed Learning Readness Scale: SDLRS)를 You(1997)가 번안·수정한 도구 32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4점으로 표기하는 4점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86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Kang(1986)이 번안한 Coopersmith(197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SEI) B형을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평가를 표기하는 12문항의 2점 평점 척도이다. 각 문항은 '그렇다'의 2점에서 '아니다'의 1점을 주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70으로 나타났다.

3) 통제위 측정도구

간호대학생의 통제위 측정도구는 Rotter가 개발한 내외적통제위척도(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를 Cha(1975)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작성한 21문항 중 간호대학생의 상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6개의 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적통제에 1점, 외적 통제에 0점을 주는 2점 평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내적통제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63으로 나타났다.

4)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간호대학생의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는 You(1997)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표기하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표기하는 4점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생활만족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73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서울, 충남, 경북지역의 3개 간호학과를 방문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한 질문지 240부 중 부적절하게 기재된 16부를 제외한 22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PC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자아존중감, 통제위, 생활만족 정도는 기술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자아존중감, 통제위, 생활만족 정도는 t-test, ANOVA 및 Duncan 다중 비교 검증법을 이용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자아존중감, 통제위 및 생활만족 정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 총 224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중 여학생이 99.1%(222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남학생은 0.9%(2명)였다. 4학년이 35.3%(79명), 2학년이 33.5%(75명), 그리고 3학년이 31.3%(70명)였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52.7%

(11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대도시가 31.7%(71명), 농어촌이 15.6%(35명)였다. 간호학과 입학동기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입학이 49.1%(11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주변의 권유가 45.5%(102명), 기타 5.4%(12명)의 순이었다.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성적수준은 중간 정도로 지각하는 경우가 66.5%(14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하위 수준'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23.7%(53명), '상위 수준'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9.8%(22명)였다. 전공과목에 대한 자가학습 정도는 '보통이다'가 71.9%(16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전혀 안한다'가 21.4%(48명), '잘한다'가 6.7%(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자가학습 정도는 '1가지'가 54.9%(123명), '전혀 없다'가 29.9%(67명), '2가지'가 12.9%(29명), '3가지 이상'이 2.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 즉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자아존중감, 통제위, 생활만족도의 정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는 <Table 1, 2>와 같다.

<Table 1> Self directedness, Self esteem, Locus of control & Life satisfaction N=224

Variables	Mean	Mean/Item	SD
Self-directedness	91.23	2.85	9.15
Self-esteem	17.56	1.46	2.59
Locus of control	7.65	0.51	2.60
Life satisfaction	23.67	2.37	3.87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는 평균 91.23이었고 4점 척도에서 문항평점 2.85로 약간 높은 자기주도성 정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년(F=3.33, p=.038), 성적수준 지각정도(F=5.69, p=.004), 전공 자가학습정도(F=7.14, p=.001) 및 전공의 자가학습 정도(F=4.30,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의 경우 2, 3학년 보다는 4학년이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성적수준을 상 또는 중간 정도로 지각하는 경우가 하위 수준으로 지각하는 경우보다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과목에 대한 자가학습을

<Table 2>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 directedness among Nursing Students

N=224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T or F	p	Duncan
Grade	Sophomore	89.55(a)	3.33	0.038	a*b
	Junior	90.77(a)			
	Senior	93.24(b)			
Registered town	Large	92.82	2.90	0.057	
	Small-to-medium Villages	91.14			
Admission motive	Self will	91.33	0.26	0.769	
	Persuade by others	90.93			
	Others	92.92			
Self-level perception	High	92.96(a)	5.69	0.004	a*b
	Middle	92.26(a)			
	Low	87.62(b)			
Self-study in majoring	No	87.44(a)	7.14	0.001	a*b
	Moderate	91.90(b)			
	Good	96.20(b)			
Self-study except for majoring	No	88.91(a)	4.30	0.007	a*b
	1 kind	91.46(a)			
	2 kind	94.03(a)			
	Above 3 kind	100.60(b)			

a*b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 & b group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보통 또는 잘하는 경우로 보고한 학생, 그리고 전공외 자가학습을 3가지 이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 보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이 2명이었으므로 통계적 검증의 의의가 없으므로 판단되어 결과해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17.56이었고 1-2까지의 2점 척도에서 문항평점 1.46으로 보통정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통제위 정도는 평균 7.65였고 0에서 1까지의 2점 척도에서 문항평점 0.51로 보통 정도의 통제위 정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23.67이었고 4점 척도에서 문항평점 2.37로 보통정도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었다.

3.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N=224			
	Self-esteem	Locus of control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		
Locus of control	0.251*	-	
Life satisfaction	0.579*	0.193*	-
Self-directedness	0.481*	0.349*	0.278*

* : p < .001

본 연구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자기주도성과 연구의 예측 변인인 자아존중감(r=.481, p<.000), 통제위(r=.349, p<.000), 생활만족도(r=.278, p<.000)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4.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인 자아존중감, 통제위, 생활만족도와 일반적 특성 중 자기주도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학년, 성적지각정도, 전공 자가학습 정도 및 전공외 자가학습 정도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

제가 위의 결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나<Table 3>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으므로 다중공선성 검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중공선성 분석결과에서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가 0.1이하 그리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5-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데(Kim, 1994),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 모든 독립변수에서 허용도가 0.5이상이었으며, VIF 값도 2이상을 넘지 않았다<Table 4>. 다중공선성의 확인 후 그 다음 절차로 잔차분석을 위해 더빈-왓슨 검정과 Cook's D 검정을 수행하였다. 설정할 모형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잔차들의 정규성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더빈-왓슨의 기준값이 2에 가까운 수록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Kim, 1994), 본 연구의 분석결과 2에 가까운 1.88의 값이 확인되었다. 또한 관찰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Cook's D 검정결과 통계량값이 0.5이상되는 것은 배제할 것을 고려해야하나(Kim, 1994), 본 연구 분석결과 224명 모든 관찰치의 Cook's D 값이 0.1 이하의 값을 보여 모든 관찰치를 그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어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설명해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통제위, 전공의 자기학습 정도(2가지), 전공 자기학습정도(잘함), 전공의 자기학습 정도(3가지)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아존중감이 양의 관계로 가장 높은 23%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통제위에 의해 양의 관계로 6%, 그리고 전공의 자기학습 정도(2가지), 전공 자기학습정도(잘함) 및 전공의 자기학습 정도(3가지 이상)가 6%를 설명하고 있어, 이 5개의 변인들로 35% 설명되고 있었다. 이외 생활만족도, 학년, 성적수준 지각 정도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설명하는 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는 평균 91.23(문항평균점 2.85)으로 다소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많은 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기주도성의 준비도

<Table 4> Multicollinearity Test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DF	Toleranc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Locus of control	1	0.86	1.16
Self-esteem	1	0.55	0.81
Life satisfaction	1	0.60	1.66
Grade(junior)	1	0.69	1.46
Grade(senior)	1	0.68	1.48
Self-level perception(good)	1	0.64	1.55
Self-level perception(average)	1	0.66	1.51
Self-study in major(moderate)	1	0.69	1.44
Self-study in major(good)	1	0.66	1.51
Self-study except for majoring(1 kind)	1	0.74	1.34
Self-study except for majoring(2 kind)	1	0.76	1.32
Self-study except for majoring(above 3 kind)	1	0.89	1.13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f Variables on Self Directedness

N=224

Variable	β	R ²	Cum.R ²	F	P
Self-esteem	1.33	0.23	0.23	66.87	0.000
Locus of control	0.90	0.06	0.29	17.23	0.000
Self-study except for majoring(2 kind)	3.99	0.02	0.31	4.85	0.029
Self-study in major(good)	4.80	0.02	0.33	5.54	0.020
Self-study except for majoring(above 3 kind)	7.82	0.02	0.35	4.21	0.041

가 상당 부분 높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Choi, 1999; Reynolds, 1985)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학생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2, 3학년 보다는 4학년이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 학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정도가 높다(Finestone, 1984; Kim, 1995; Roberts, 1986; You, 1997)는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즉 간호학의 특성상 고학년에 전공과목에 주력하게 되고 다양한 임상 실습경험 중에 학생들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져 자기주도성에 훈련되어지는 경향과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이 후학기로 4학년의 경우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스스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저학년에 비해 높게 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신의 성적을 하위수준으로 지각하는 경우보다는 중간이상으로 지각하는 경우와 전공이외의 학습정도에서 전혀 하지 않거나 적게하는 경우보다는 3가지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며 학습에 대해 자기주도적인 학생일수록 전공과목의 자가학습에 충실하고 더불어 전공이외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지적적응과 기술함양을 위해 더욱 자발적으로 임함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자아존중감, 통제위 및 생활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개 변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481, p<.00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분석할 수는 없으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Kim(1999)과 You(199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제위와도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r=.349, p<.000$) 자신의 학습 결과는 자신의 노력과 같은 개인의 내적통제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학습에 대한 높은 자기주도성을 띄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수집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만족 정도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만족이라는 것은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또는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도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Schalock, 1996) 자신의 일상생활, 즉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만족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현재 주과업이라 할 수 있는 학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심리적 기반이 제공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 결과 중 간호대학생의 통제위와 생활만족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r=.193, p<.003$)를 보이고 있는 결과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높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자신의 현재 생활에 높은 만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Ponto(1999) 역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통제위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자아존중감, 통제위, 전공의 자가학습 정도(2가지), 전공 자가학습 정도(질함) 및 전공의 자가학습 정도(3가지)에 의해 35% 설명되고 있었다. 이 중 자아존중감(23%)과 통제위(6%)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자기주도성준비도 측정도구를 개발한 Gulielmino(1977)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abbaghian(1980)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효율적인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한 You(1997)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성을 설명해주는 가장 유의한 변수로 통제위와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존재로 판단하고, 자신의 학습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며 책임지겠다는 내적통제위를 가진 간호대학생일수록 학습에 대한 높은 자기주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확립과 자신의 의지로 학습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는 통제감 인지를 극대화 시켜주는 학습자의 내부적 요인의 자극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증진 학습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설명요인으로 선택한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성은 확인되었으나 자기주도성 예측변인으로서의 설명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학습자의 현재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Brockett, 1983; Curry, 1983; East, 1987; You, 1997)를 고려해볼 때 경험적 증거의 축적을 위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통합적 비교를 위한 검증에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기타 다른 광범위한 인구학적인 특성과 사회·심리적인 변인들의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간호실무는 매우 급변하고 있으며 간호사에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학부에서부터 자기주도적 학습에 훈련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학습전략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주도성에 잘 훈련된 간호사는 현재 자신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직시하고 평가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자기주도적 학습모형 개발과 적용을 위한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자아존중감, 통제위 정도 및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며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간호학과 대학생 224명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도구로 자기주도성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통제위 측정도구,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AS/PC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및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정도는 평균 91.23(평균점 2.85)으로 다소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정도는 학년, 성적 수준, 지각정도, 전공 자가학습정도 및 전공외 자가

학습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자아존중감, 통제위 및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통제위 및 생활만족도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예측변인과 일반적 특성 중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설명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23%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통제위에 의해 6%, 그리고 전공외 자가학습 정도(2가지), 전공 자가학습정도(잘함), 전공외 자가학습 정도(3가지 이상)가 6%를 설명하고 있어, 이 5개의 변인들로 35% 설명되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는 자아존중감과 통제위가 매우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해주는 사회·심리적 변수임이 확인되었고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전공과 전공이외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측정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2. 간호대학생 뿐만이 아닌 현재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3. 간호대학생과 실무 간호사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유형 규명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American Nurse Association (1978). Ad Hoc committee on nontraditional study for self-directed learning. *Self-directed continuing education in learning*. Kansas city.

Bower, T. G. R. (1979). *Infant perceptions of the third dimension and object concept development*. In L. B. Cohen & P. Salapatek(Eds), *Infant perception : From sensation to coquition*, N. Y. : Academic. 2.

Brockett, R. G. (1983).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Brockett, R. G., & Rogers, H. (1989). *Self-direction in adult learning: perspective 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Candy, P.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Cha, C. H. (1975). *Son preference ideology in Korea*. Korean Behavior Science Institute.
- Choi, G. S.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learner variables to self-directed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 Ik University of Korea, Seoul.
- Coopersmith, S. (1975).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Technical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urry, M. A. (1983). *The analysis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characteristics in older adults engaged in formal learning activities in two set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East, J. M.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Finestone, P. M. (1984). *A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with labour education particip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Fisher, M., King, J., & Tague, G. (2001). Development of a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for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1(7), 516-525.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Kalish, R. A. (1975).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Cole publishing Co.
- Kang, J. G. (1986). *The influence of the self-esteem, course consciousness maturing and learning achievement on the occupation ambit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C. R. (1994). *SAS statistics box*. Data research publishing Co. Seoul.
- Kim, D. Y. (1999). *A study on self-directive learning read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J. H. (1995). *A study of Self-directed learning of farmer successor and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W. Y. (2000).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for intrinsic motivation, self-concept, academic achievement & problem solving ability of lear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Y. S. (1997).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of background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lear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Toronto, on : The Adult Education company.
- Patterson, C., Crooks, D., & Lunyk-Child, D. (2002). A new perspective on competencies for self-directed learning. *J. of Nursing Education*, 4(1), 25-31.
- Phares, E. J. (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General learning press. New Jersey.
- Ponto, M. T. (1999).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locus of control and satisfaction, *British J. of Nursing*, 8(3), 176-181.
- Reynolds, M. M. (1985). *The self-directedness and motivational orientation of adult part-time students at a community colle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Roberts, D. G. (1986). *A study of the use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as related to selected organization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abbaghian, A. S. (1980). *Adult self-directedness and self-concept : An exploration of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Schalock, R. (1996). *Quality of life.* New York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Taft, L.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77-84.

You, G. O. (1997). *A study on the self-direction of adult learners and its demographic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Oh, Won-Oak**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ct the correlations and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amples were composed of 224 nurse students who were from three nursing department in Seoul, Chungnam & Kyunbook. The reliability of 4 instruments was tested with Cronbach's α from .63 to .86.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SAS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elf-directedness score was 91.23 which was slightly high. The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grade, perception of self-level, self-study in majoring and self-study except for majoring(F=3.33-7.14, $p<.05$). 2.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ll the predictive variables and the self-directedness($r=.27-48$, $p<.01$).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35% of the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were significantly explained by self-esteem(23%), locus of control(6%), self-study except for majoring(2 kind, 2%), self study in majoring(good, 2%), and self-study except for majoring(above 3 kind, 2%).

Conclusion: Based upon these findings,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like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re very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Self-directedness,
Nursing students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2.
**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